명령 같은 처방

(행17:1~15)

10.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뢰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11.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12.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13.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뢰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14.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15.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명령 같은 처방>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명령과 처방이라는 말은 그 의미 속에 들어있는 속성을 따져보면, 사실은 전혀 반대 되는 입장의 말들입니다.
예를 들어 군대에서의 명령 그리고 의사선생님에게 갔을 때 내리는 처방을 한번 생각해봐요.
뭐가 다릅니까?
명령이라는 것은 윗사람으로부터 아랫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내게 명령이 주어졌다고 할 때 윗사람이 나의 개인적인 입장이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명령은 명령하는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아랫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주간 동안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도 한 모금 먹지 않으면서 금식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건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게 미군부대니까 가능했겠지요?

식사하는 것도 소대가 함께 가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한 시간 반 동안에 식당에 가서 먹는 것이니까 가능했겠는데, 금식 4, 5일째 되니까 힘이 없고 앉았다 일어나면 핑핑 돌아요.
그래도 헬기장에 가서 헬기를 고쳐야 되는 그 일은 내 처지를 생각해서 감안해준다든지 그런 것 없습니다.
내 상관은 계속 명령을 내립니다, 헬기의 이 부분을 고쳐라, 저 부분을 고쳐라, 몇 번 헬기를 고쳐라, 내 입장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그저 나를 진단합니다, 그리고 내게서 나타나는 증상을 고려해가지고 완전히 내 처지에 맞춰서 처방이 내려집니다.
명령은 내가 그 명령에 맞춰야 하는 것이고, 처방은 나에게 맞춰져서 떨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사건은 명령입니까, 처방입니까?
이게 바로 명령 같은 처방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복음사건은 하나님에게 필요해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인간은 우리 모두 인간인 이상에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자기 문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처방을 내릴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주님의 십자가사건은 분명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이에요, 근데 나도 나에 대해서 처방을 내리고 있다는 얘깁니다.
분명히 내가 내린 처방이 나한테는 더 쌈빡하게 여겨지고 피부에 와 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내리신 십자가라고 하는 처방이 내가 나에 대해서 내린 처방에 대해 겉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로원(0,1)복음방송은 어떡하든지 우리가 십자가를 생활화하게끔 하려고 이렇게 방송하는 것이고…

왜 생활화를 못한다고요? 내가 나에 대해서 내린 처방이 있기 때문에.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내가 고려하고 내가 판단해서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린 처방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는 처방이 언제 필요합니까?
내가 죄를 깨달을 때, '아, 내가 죄에서 놓임 받는 게 십자가구나!' 그래서 죄를 깨달을 때만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사업이 안 될 때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처방해주신 겁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사도바울의 고백은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점심때만 죽겠습니까? 저녁때만 죽겠어요? 한 달에 두 번 죽을래요? 일주일에 한 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생활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꾸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응답하셨어요.
내가 돈이 필요할 때도 하나님은 처방을 십자가로 주십니다, 자식이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처방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내 처방은 좋은 과외선생님을 찾는 것이에요.
내 아들을 위해 좋은 배우자감을 찾는 게 내 처방이에요.
내 인생이 행복하기 위한 내 처방은 지금 승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처방은 십자가에요.
십자가는 승진에 대해서 죽으라는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해서 돈 벌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처방은 돈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마음이 돈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돈 벌기 이전에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처방하는 것이 훨씬 피부에 닿아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 피부에 닿아있는 내 처방을 따라가면서 생활하고, 내가 내린 처방을 따라가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인 십자가가 완전히 창고 속에 묵혀 있습니다.
이 처방전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무효화시키는 신앙, 신앙 아닌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복음은 나를 위한 처방이지만, 내가 나에 대해서 처방을 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방인 복음이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마음이 필요합니까?
나를 위해 내리신 하나님의 처방인 십자가를 받아들이려면 명령처럼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내가 나에 대해서 처방을 내리고 있는데, 이 처방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내 마음을 객관적으로 떨쳐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관성 안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목사님들의 설교도 교인들의 눈에 보이는 형편에 맞춰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돼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처방인 십자가를 상실하는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에서의 전도활동과 베뢰아에서의 전도활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달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는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박해합니다.
그런데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아주 진지하게 듣고, 이 말씀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성경을 연구하면서 확인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이 두 태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즉,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실라를 박해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주관적인 입장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고수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전한 복음말씀이 자기가 주관적으로 고집하고 있는 자기 입장과 어긋난다고 생각하니까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뢰아 사람들은 자기 주관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로부터 객관적인 성경을 기준으로 말씀의 진위여부를 확인합니다.
나의 주관적 입장을 떠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객관적인 태도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에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관적인 입장을 떠나는 자세가 없으면 십자가복음은 완전히 무효화되어버립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 돼버려요.
이 하나님의 처방전이 처방대로 약을 사서 먹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사건이 일어났어도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을 치르

며 성취하신 어마어마한 복음사건이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나라에 간다, 이 생각 하나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매순간순간마다 효과와 능력을 낼 수 있는 이 복음이, 완전히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효화되고, 죽은 다음에나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사건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 복음의 효과를 경험하지 못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그 복음 때문에 천당 못갑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처방전대로 복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왜 바울과 실라를 박해했을까요?
2, 3절에 보면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는데,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를 전했다, 예수를 연결시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구약 전체를 바울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에 대한 예언으로 보았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예언했는데, 메시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구약성경이 묘사했는가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하면서, 성경을 다 그 죽음과 부활로 응축시켜버렸습니다, 그 사건 안으로 다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예언된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예수다'라고 연결을 시킨 겁니다.
이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제 바울의 말에 따르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되는 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천국이 내 것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갑자기 황당해진 겁니다.
모세의 율법,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선민의식, 선민의 징표인 할례,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방지역에 와서, '우리는 선민이고 비록 나그네 된 입장이지만 너희들은 다 이방인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 입장 내 스펙, 완전히 황당할 정도로 아

무런 의미가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 속에는 내 입장에 대한 고려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선민의 자긍심을 갖고 살았는데, 그 자긍심의 근거가 될 만한 요소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박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베뢰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바울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라고 전할 때, 자기들의 입장도 있지만 자기 입장을 떠나서 성경에서 찾아보면서, 처음 본 바울과 실라가 전한 그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를 상고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일 때, 자기 입장을 떠나서 객관적인 마음으로 말씀과 대면을 합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복음이 무효화된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느끼고 있는 주관적인 입장을 떠나지 않으면 십자가복음을 생활화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학 시간에 참 많이 배웠어요.
듣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 신학적인 용어로 'Sitz im Leben'이라고 해요,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를 고려해야 된다.
그건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을 고려하라, 그래서 나온 신학이 남미의 해방신학 같은 겁니다.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는다는 이 현실에서 필요한 need를 좇아서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해방신학이고 민중신학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 용기 목사님의 3박자 축복도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민중신학과 해방신학과 조 용기 목사님이 지향하시는 3박자 축복이 전혀 반대입장인 것 같은데, 뿌리가 같은 겁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린 것이냐 하면, 바로 이 현실 생활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현실생활에서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나의 처방을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돈 달라고 울 때, 그때 하나님의 처방은 돈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돈을 잘 벌고 잘살게 될 거라는 희망을 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면 직장을 구할 수 있다, 어디에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계시를 주시는 게 아니고, 돈에 대해서 죽으라고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십자가처방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징징거리며 울고 있는 엄마에게 자식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길을 처방해주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주시면서 자식에 대해 죽으라고 가르쳐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의 처방을 알려주신 겁니다.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응답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라!' 어떤 문제든지 간에, 백 가지, 천 가지, 만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 이 처방을 내려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격자라고 하면서, 우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처방을 내리는데, 우리가 소원하며 내린 처방과 십자가라는 처방이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내 처지에 대한 필요성과는 너~무 관계가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하면, 내가 지금 돈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십자가를 제시하십니다, 돈에 대해서 죽어라.
지금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내 느낌과는 너무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게.
그래서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처방인데,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너무나 상관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위한 처방이에요.
그러므로 명령처럼 받아들여서 말씀을 자꾸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내 판단에 맞춰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내 입장과 느낌을 뚝 잘라내 버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처방에 명령처럼 반응을 하는 겁니다.
나를 맞춰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돈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하시니까, 왜 이래야 되는지 나는 못 느끼겠지만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이니까 명령처럼 느끼고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해버리겠다!'

이 마음이 없으면 복음을 생활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베뢰아 사람들처럼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뚝 잘라버리고 주관적인 마음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복음을 못 받아들여요.
설교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교인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 자기 스스로에게 내린 자기 처방을 고려하고 거기에 말려들어 갔다가는 이미 설교자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처방을, 교인들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들에게 내린 처방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선언하는 자입니다, 선포하는 자에요.
'하나님의 처방은 이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게 필요한데… 건강이 필요한데, …한데, …한데'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아프다고 질질 짜면,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건강이 필요해서 병원에 가기 전에 제일 먼저 선언해야 될 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에서 몸에 대해 마음이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몸에 말뚝이 박힌 것 같은 고통스러운 가시를 안고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겁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교인들의 입장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러지 않으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죽고 교인들도 다 죽어요.

주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밥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나에 대해 내린 나의 처방과는 전혀 관계도 없고, 심지어 쓸데없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십자가라는 처방을 무조건 명령처럼 받아들여서, 십자가를 날마다 복용하노라 보면, 여러분, 약속드릴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린다면, 만사가 다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끌려져 갈 것입니다.
'명령 같은 처방'입니다, 무엇이?
십자가의 복음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내가 지금 내 처지와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내 처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 처방과는 너무나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내 처방을 잘라버리고, 내 처방에 대해서 객관적인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처방인 십자가복음을 명령처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